

광주 28명중 16명 재산 늘어... 전남 84명중 21명 10억 이상 재력가

광주시·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발표한 2015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결과 윤장현 광주시장 등 광주지역 공개대상자 28명의 평균 재산액은 6억3781만원이었다. 이낙연 전남지사 등 전남지역 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 공직자 84명의 평균 재산은 9억 281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1년전에 비해 4761만원이 감소한 7억5303만원을 신고해 전국 17개 시·도지사 중 박원순 서울시장(6억8493만원)에 이어 16위에 머물렀다.

광주에선 공개대상자의 57.1%인 16명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으며, 송광운 광주 북구청장이 1억4039만원 증가해 최고치를 나타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4936만원이 늘어난 5억3806만원을, 최영호 남구청장은 4506만원이 증가한 1억7316만원을 신고했다. 노희용 동구청장은 수감중이어서 신고하지 않았다.

오형국 부시장은 8618만원이 증가했으며, 우범기 경제부시장은 1300만원이 늘어난 3189만원을 신고했다. 우 부시장은 본인 명의로 아파트 2채와 아파트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만, 금융 채무가 5억 5300만원이나 돼 전체 재산은 3000만원대에 그쳤다.

시의원 중에선 서미정 의원(신고액 7억 6373만원)이 7161만원이 늘어 가장 높은 증가액을 보였으며, 이은방(17억311만원) 6815만원, 전진숙(2억4701만원) 5762만원, 김민중(4억7407만원) 5414만원, 김보현(-1억1315만원) 5282만원, 이정현(4억 9434만원) 2912만원 등의 순으로 재산이 늘었다.

김옥자 시의원은 1억8758만원이 줄어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조세철 시의원(-1억1788만원), 조오섭 시의원(-5616만원) 등 12명이 재산이 줄었다. 전체 28명의 공개 대상자 중 김보현 시의원은 -1억1315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낙연 전남지사 등 전남도내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5명 가운데 3명이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다. 22명의 시장·군수 중 10명, 57명의 전남도의원 중 8명 등 재산공개 대상 84명 가운데 4분의 1(21명)이 10억 이상 자산가였다.

이 지사는 1년 전에 비해 6544만원이 감소한 15억 5979만원을 신고했다. 이 지사는 선거비용과 본인 금융기관 채무 상환 등으로 재산이 감소했다.

이 지사는 본인 소유 영광군 범성면 대지, 임야, 밭,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대지, 어머니 소유 영광군 범성면 대지, 담 토지 5700여만원을 신고했다. 이와 함께 본인 명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영광군 영광읍 사부실 전세권, 아들 명의 서울 강남구 청남동 전세권 등 건물 7억6100만원이 있다고 밝혀 부동산이 재산의 대부분

윤장현시장 7억5000만원

17개 시·도지사 중 16위

시의원 28명중 12명은 줄어

김보현 -1억1000만원 최소

이낙연지사 6500만원 감소

전남 단체장 14명 재산 증가

을 차지했다.

예금(본인 3700만원, 아내 2억2500여만원)은 2억8800여만원을 갖고 있다. 금융기관 채무(본인 2200여만원, 아들 5000여만원) 73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김영선 행정부지사는 지난해보다 1억 1600여만원 감소한 10억8000만원을, 우기종 정부부지사는 지난해보다 6100여만원 감소한 29억80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김왕복 전남도립대총장은 지난해보다 3700여만원 증가한 8억4800여만원의 재산을, 이희봉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난해보다 4600여만원 증가한 3억 8000여만원을 신고했다.

전남 시장·군수 22명 중 10명이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김철주 무안군수가 38억5000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최고로 김준성 영광군수(32억원), 조충훈 순천시장(29억50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정현복 광양시장(18억3000만원), 유두석 장성군수(15억5000만원), 주철현 여수시장(15억3000만원), 전동평 영암군수(12억9000만원), 강인규 나주시장(12억5000만원), 서기동 구례군수(11억6000만원), 이영진 진도군수(11억5000만원) 등도 10억원을 넘긴 자산가였다.

지난해보다 재산이 증가한 단체장은 14명이었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2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박홍물 목포시장(1억7000만원), 정현복 광양시장(1억 3000만원), 최형식 담양군수(1억2000만원), 김성 장흥군수(1억6000만원) 등 5명은 1억원 이상을 늘렸다.

전남도의원 57명 가운데 8명이 10억원 이상 재산을 신고했다. 임명규 의원에 이어 정영선 의원(60억7000만원), 병현관 의장(58억8000만원)이 50억원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김연일 의원(41억4000만원), 권욱 의원(29억원), 한택희 의원(14억원), 전정철 의원(13억7000만원), 이용재 의원(11억8000만원) 등이 10억원 이상의 자산가로 분류됐다.

연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고위공직자 재산 순위

□ 광주

| 순위 | 이름 | 재산 | 전년대비 증감 |
|----|-----|-----------|-----------|
| 상위 | | | |
| 1 | 임우진 | 25억999만원 | 1억2817만원↑ |
| 2 | 김동찬 | 20억8205만원 | 1684만원↑ |
| 3 | 송광운 | 18억9954만원 | 1억4039만원↑ |
| 하위 | | | |
| 1 | 김보현 | -1억1315만원 | 5282만원↓ |
| 2 | 임택 | 2520만원 | -374만원↓ |
| 3 | 반재신 | 3184만원 | -1285만원↓ |

□ 전남

| 순위 | 이름 | 재산 | 전년대비 증감 |
|----|-----|-----------|------------|
| 상위 | | | |
| 1 | 임명규 | 75억1389만원 | 2억8913만원↑ |
| 2 | 정연선 | 60억7419만원 | 4억3006만원↑ |
| 3 | 병현관 | 58억8245만원 | 2억9234만원↑ |
| 하위 | | | |
| 1 | 김효남 | -1억5698만원 | 1억2420만원↓ |
| 2 | 서일용 | -1억2877만원 | -2억86만원↓ |
| 3 | 문행주 | -4102만원 | -2억4932만원↓ |

3부 요인·광주·전남 국회의원

정부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대부분 고위공직자의 재산이 늘어난 가운데 3부 요인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의 재산도 대부분 수억원 이상씩 늘었다.

◇3부 요인=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3억3600만원 정도 늘어난 31억 6950만원이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25억5860만원에서 이듬해 정기 재산신고에서 2억7500만원이 늘어난 데 이어 2년 연속 재산이 증가했다.

입법부의 수장인 정의화 국회의장의 재산은 전년도보다 2억2810만원이 늘어난 105



인사혁신처 임만규 윤리복무국장이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182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 공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대통령 3억여원 늘어... 장병완 의원 79억원으로 최고

억53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은 3억8600만원이 증가한 총 39억27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한편, 이완구 국무총리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7390만원 감소한 11억3070만원이었다.

◇광주·전남 국회의원=18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의 대부분의 재산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씩 늘었다. 김동철 의원은 지난해 16억8800만원에서 올해 18억6730만원으로 2억5850만원이 늘어 광주·전남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재산 증가를 기록했다. 유가증권의 매입에 따른 재산 증가분이 대부분이었다. 이어 황주홍

의원이 부동산 가치 상승 및 예금(세비·주식·매도금) 증가로 2억5150만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신고했으며 임내현 의원은 월세·세비·정치자금 등으로 인한 예금 증가로 2억1670만원의 재산이 늘었다.

권은희 의원은 1억5720만원 늘어난 7억 2600만원, 강기정 의원은 9490만원 늘어난 7억370만원, 김성근 의원은 9720만원 늘어난 7억7100만원, 김영록 의원은 6030만원 늘어난 10억9960만원, 박주선 의원은 1억7250만원 늘어난 22억84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또 박해자 의원은 22억8000원(1억3040만원 증가), 우윤근 의원은 21

억1100만원(1억2090만원 증가), 이개호 의원은 18억5320만원(1억3000만원 증가), 이윤석 의원은 8억6960만원(1억3270만원 증가), 이정현 의원은 5억4700만원(1억 5430만원 증가)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다만, 박지원 의원이 6390만원, 장병완 의원이 2억9580만원의 재산이 각각 줄어들었다고 신고했다. 박지원 의원의 신고 재산액은 12억3300만원이었다. 장 의원은 3억원에 가까운 재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5억26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광주·전남 국회의원 중에서는 여전히 최고의 부자였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이색 등록 재산

광주·전남지역 공직자 중 자산가의 공통점은 토지, 건물, 유가증권, 예금 등을 재산의 각 분야별로 골고루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는 배우자와 함께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은 물론 자신의 선거구에 상당한 토지를 소유하고 언제나 입출금할 수 있는 고액을 금융기관에 맡겨놓았다.

이번에 재산을 공개한 광주지역 공직자 중 가장 부자인 임우진 서구청장은 건물 4억5900만원, 예금 19억8600만원, 유가증권 4240만원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번 재산 신고 대상자 중 조영표 광주 시의회 의장은 전체 재산이 9억3427만원이나 됐지만, 대부분 배우자의 재산이었다. 본인 소유 재산은 예금 398만원이 전부였고, 나머지도 금융 부채가 505만원으로 사실상 마이너스였다.

이은방 시의원은 배우자 다이아몬드(1.04캐럿 화이트)를 재산 목록에 넣었는데, 기존 1200만원서 800만원으로 가치가 떨어졌다. 임택 시의원은 배우자 소유로 940만원 상당의 금(24k) 188g을 신고했다. 전남도 공직자 중 재력가들도 광주와 비

슷한 재산 보유 행태를 보였다. 재산 '톱'인 임명규(보성) 전남도 의원은 토지 37억 3650만원, 건물 8억2781만원, 태양열 2억 680만원, 예금 10억3277만원 등의 재산 분포를 보였다. 38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김철주 무안군수 역시 토지 12억2088만원, 건물 14억2704만원, 예금 14억1835만원 등에 골고루 투자했다.

권욱(목포) 전남도 의원은 주식으로 재산을 불렸다. 목포 MBC 2만720주 등 배우자와 함께 다양한 주식을 소유한 권 의원은 유가증권 총액이 지난해 1억2912만원

에서 올해 4억4158만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비상장주식이 상장됐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유한회사 조원실버타운에 3억원을 출자해 지분 60%를, 김기태(순천) 전남도 의원은 순천평화병원 장례식장에 1억원을 출자해 지분 20%를 소유하고 있다.

서정환(여수) 전남도 의원은 6500만원 상당의 바이올린을, 전남도립대 김왕복 총장은 배우자가 1980년대 구입한 운보 김기창 동양화 백포(52×140cm), 남농 허건 동양화 산수화(126×32.5cm)를 각각 재산으로 신고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